

518 담전 6장, 만족하는 마음

오늘 대하설교는 디모데전서 6장을 살펴볼 차례입니다.

6:1-2, 주인에 대한 종들의 바람직한 자세

6장 1절 바울이 디모데에게 당부한다.

6장1절: 무릇 명에 아래에 있는 종들은(노예들은) 자기 상전들을(주인들을) 범사에 마땅히 공경할 자로 알지니 이는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으로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 1절을 새번역으로 함께 보면,

(딤펴 6:1, 새번역) 종의 명에를 메고 있는 사람(노예)은 자기 주인을 아주 존경할 분으로 여겨야 합니다. 그 령게 하여야, 하나님의 이름과 우리의 가르침에 욱이 돌아가지 않을 것입니다.

바울은, 불공평한 노예제도의 부당성을 내세워 노예들이 투쟁할 것이 아니라, 자신이 처한 위치에서 성실히 임하여 신임을 받음으로써 오히려 하나님 나라 확장의 기회를 도모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바람직한 모습을 나타낸다. 당시 그리스도교는 이러한 선을 행하는 방법이 성공을 거두어 노예 계층에 널리 전파되었고, 로마제국 내에서도 평민과 귀족 계층으로까지 점차 확대되었다.

6장2절: 믿는 상전이 있는 자들은(노예들은) 그 상전을 형제라고(동일한 그리스도인이라고) 가볍게 여기지 말고 더(더욱) 잘 섬기게 하라 이는 유익을 받는 자들이 믿는 자요 사랑을 받는 자임이라 (디모데) 너는 이것들을 (노예 출신 성도들에게) 가르치고 권(면)하라

→ 2절을 새번역으로 다시 보자.

(딤펴 6:2, 새번역) 신도인 주인을 섬기는 종들은, 그 주인이 신도라고 해서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주인을 더 잘 섬겨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섬김에서 이익을 얻는 이들이 동료 신도요, 사랑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대는 이런 것들을 가르치고 권하십시오.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리스도인 주인을 둔 그리스도인 노예들로 하여금 그의 주인을 더욱 잘 섬기도록 교육할 것을 당부한다. 이런 바울의 당부는, 바울 당시 동일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로 주인을 무시하고, 그 권위에 도전했던 노예 그리스도인들이 존재했음을 시사한다. 그러나 바울은, 그리스도인 노예들에게 오히려 그들의 주인을 더욱 잘 섬기는 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바람직한 모습을, 하나님의 뜻을 단호하게 권고한다. 이 부분에 대해 우리는 깊이 생각해보아야 한다. 바울은 당시 로마의 악법이라 할 수 있는 노예제도 앞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선으로 그 악법을 이겨야 함을 교훈하고 있다. 로마서 12:21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자.

(롬12:21)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바울은 피력하고 있다. 악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선한 방법이라는 것을 우리 그리스도인은 명심해야 한다.

6:3-5, 부패한 거짓 교사(목회자)들의 실상

바울은 여기서 거짓 교사들의 부패한 특징에 대해 묘사하면서 그들의 물욕에 대해 강하게 지적한다. 물욕은 일반 성도들에게도 위험한 것이지만, 특히 목회자들에게는, 교회 지도자들에게는 치명적인 독이라 할 수 있다.

6장3절: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혼합물을 가르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영적 성숙)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6장4절: 그는 교만하여 아무 것도 알지 못하고 ...

→ 줄을 치자. 다른 교훈, 혼합물을 추구하는 교사들의 특징이다.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교만한 바보' 라고 적어두자.

6장4절: 4. 그는 교만하여 아무 것도 알지 못하고(교만한 바보가 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5.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 버려 ★경건을 (물질적)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자들 사이에)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 오늘날에도 성공주의 기복주의 변영신학이 들어오면서 경건을 물질적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교회들, 그런 성도들이 매우 많은 것을 볼 수 있다. 읽은 3-5절을 새번역 성경으로 다시 보면,

(담전 6:3-5, 새번역) 3. 누구든지 다른 교리(다른 교훈)를 가르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건전한 말씀과 경건에 부합되는 교훈을 따르지 않으면, 4. 그는 이미 교만해져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면서, 논쟁과 말다툼을 일삼는 병이 든 사람입니다. 그런 데서 시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의심이 생깁니다. 5. 그리고 마음이 썩고, 진리를 잃어서, ★경건을 (물질적) 이득의 수단으로 생각하는 사람 사이에 끊임없는 알력이 생깁니다.

당시 디모데가 목회하던 에베소에는 아데미 여신 숭배와 관련된 종교상업주의가 판치고 있었다. 이처럼 종교를 부 축적의 기회로 삼는 이교도의 사상이 만연한 에베소 지역의 에베소교회에도 경건을 부 축적의 기회로 삼는 거짓 교사들이 침투했고, 바울은 바로 이러한 이교도의 종교상업주의를 따르는 거짓 교사들을 신랄하게 비판하고 있다. 우리는 이번 3-5절 단락을 통해서 다른 교훈, 혼합물에 빠진 목회자들에게서 나타나는 특징들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한다.

6:6-8, 물질에 대하여 만족(자족)하는 마음을 가질 것

이번 단락은 1차적으로 바울이 후배 목회자 디모데에게 하는 권면이다. 하지만 우리 모두에게 확대 적용할 수 있는 바울의 사도적 교훈의 말씀이다. 진정한 행복은 물질의 많고 적음에 달려 있지 않다. 진정한 행복은 물질의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다.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물질주의, 자본주의는 결코 인간을 만족시킬 수 없다. 물질 축적에 몰두하는 인본주의적 세계관을 주의하고 경계해야 한다. 이는 그리스도인으로

서 마땅한 모습이다.

6장6절: 그러나 (물욕이 있는 교사들과는 달리) 자족(만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경건에) 큰 이익이 되느니라

→ 물질에 대하여 만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에 큰 이익이 된다.

6장7절: 우리가 세상에 아무 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며 또한 아무 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 공수래공수거(空手來空手去).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것이 인생이다. 이제 8절 별표하자.

6장8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 8절을 새번역으로 다시 보면,

(담전 6:8, 새번역) 우리는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그것으로 만족해야 할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말씀이다. 우리는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그것으로 만족해야 할 것이다. 이 땅에서 누리는 물질이나 소유에 대하여 그리스도인이 취해야 할 바람직한 자세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그것으로 만족해야 할 것! 이라고 바울은 분명하게 교훈한다. 여기서 먹을 것과 입을 것이란, 인간 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의식주를 의미한다. 생존을 위한 가장 기본적이며 최소한의 의식주에 만족할 줄 아는 청빈한 태도는 결국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신본주의적 세계관을 가진 자만이 취할 수 있는 성숙한 태도라고 할 수 있다.

6:9-10, 물욕에 대한 경계

앞선 3-8절은 부패한 거짓 교사들의 실상을 밝히며, 목회자 디모데에게 물질에 대하여 자족하는, 만족하는 마음을 가질 것을 권면하였다. 이제 9-10절은 물질에 대하여 자족하는 마음을 갖지 못한 자들이 맞이하게 될 비참한 운명을 말하며, 목회자로서 물욕에 대하여 경계할 것을 권면하고 있다. 이처럼 바울이 디모데에게 물질에 대한 교훈을 거듭하여 주는 것은, 당시 교회 지도자 가운데 물욕으로 인하여 사탄에게 미혹된 자들이 많았기 때문이다. 이제 살펴볼 9절의 ‘부하려 하는 자들’은 ‘물질에 대하여 만족하는 마음을 갖지 못한 자들, 현재 누리고 있는 것들에 대하여 불만을 가진 자들’을 가리킨다.

6장9절: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울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결국)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10절에는 별표 2개하자.

6장10절: ★★돈을 사랑함이 일만(모든)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원어: 이것을 잡으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자들은) (사탄의)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큰 고통)으로써 자기를 찢렸도다★★

→ 스스로 큰 고통을 자초하는 어리석은 행위임을 바울은 논증한다. 예나 지금이나 사람들의 대표적인 우상인 ‘돈’을 사랑하는 것이 사람에게 있어서 얼마나 위험하고 악한 것인지를 이해하고 깨달아야 한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뿌리이다! 라는 시공을 초월하는 진리의 말씀을 가슴에 새겨야 한다. 사람은 누구나 ‘진리’와 ‘돈’, 곧 ‘하나님’과 ‘맘몬’을 동시에 추구할 수 없다. 즉, 하나님을 섬김으로써 돈에 대한 욕심을 버리게 되거나, 돈을 우상으로 섬김으로써 결국 하나님을 버리게 되거나, 둘 중에 하

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다.

6:11-16, 하나님의 사람이 추구해야 할 덕목들

6장11절上: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이 ...

→ 하나님의 사람은 반드시 추구해야 할 덕목들이 있다. 하나님의 사람은 이런 덕목을 갖추어야 한다.

6장11절上: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이 이것들을(3-10절까지 서술된 거짓 교사들이 추구하는 멸망의 요소들을) 피하고 ★의와(공의, 의로움과) ...

→ 하나님의 사람은 반드시 의로워야 한다.

6장11절中: ... 경건(경외심에서 비롯된 두려움에서 비롯된 영적 성숙)과 (신실한)믿음과 (희생적인)사랑과 ...

→ 하나님의 사람은 반드시 희생적인 사랑이 있어야 한다.

6장11절下: ...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 이는 거짓 교사와는 질적으로 다른, 하나님의 사람이 추구해야 할 신앙적이며 도덕적인 덕목들이다. 이런 덕목들은 비단 목회자 디모데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땅히 힘써 지키며 추구해야 할 덕목들임을 기억해야 한다. 11절 하반절에서 믿음으로 번역된 ‘피스틴’ 이 사람에게 대한 신실성을 가리킨다면, 12절 상반절에서 믿음으로 번역된 ‘피스테오스’ 는 10절과 21절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리킨다. 이것은 다른 교훈을 따르는 거짓 교사들이 저버린, 진리를 따르는 바른 믿음으로 볼 수 있다.

6장12절: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그리고)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네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많은 사람들 앞에서 공적 시인을 하였도다)

→ 먼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는 것은, 바른 교훈으로 사탄의 다른 교훈과 싸우며, 바른 믿음을 사수하라! 는 의미로 볼 수 있고, 그리고 ‘영생을 취하라!’ 는 것은, 영생을 보장받은 자로서 당연히 합당한 성화의 삶을 살므로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지 말아야 한다! 는 의미로 볼 수 있다. 이제 13절 이하, 15절 상반절에서 바울은 디모데를 향하여,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11-12절의 명령을 반드시 지켜야 할 것을 당부한다.

6장13절: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 본절에서 바울은, 하나님 앞과 그리스도 예수님 앞에서 명령한다고 말함으로써 11-12절의 명령이 디모데가 반드시 지켜야 할 중요한 명령임을 밝힌다. 14절 중요한 말씀이다. 별표하자.

6장14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 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 바울이 여기서 언급한 ‘이 명령’ 은 11-12절의 명령을 포함하여 디모데전서에 기록된 바울의 모든 권면을 포괄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6장15절上: 기약이 이르면(정한 때가 되면) 하나님이 그의(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

이제 15절 중반절에서 16절은, 바울이 성부 하나님께 대한 찬송을 덧붙이는 부분이다. 성부 하나님께 대한 찬송의 내용이다.

6장15下-16절: ...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오 16.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그분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분)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6:17-19, 부자들을 향해 훈육할 말씀

6장17절上: (디모데) 네가 (목회자로서)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부자들에게) (이런 말씀으로) 명(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

→ 부자들은 자신이 가진 많은 것들로 인해 스스로를 대단한 존재로 착각한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런 부자들의 교만할 가능성에 대하여 주의를 줄 것을 권고한다. 그리고 17절 중반절의 '정함이 없는' 은 원어적으로 '불확실성' 을 의미하는 표현이다. 이는 일반적으로 부자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돈, 부동산, 금은보석, 보험, 주식 등이 확실하거나 안정적인 것이 아님을 분명히 드러낸다. 그리스도인 부자들은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 재물이 불확실하고 재물이 불안정하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것을 신뢰하지 말아야 함을 바울은 교훈한다.

6장17절中: ... 정함이 없는(불확실하고 불안정한) 재물에 ...

→ 세상의 인본주의적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은 재물이야말로 확실하고 안전한 방법이라고 믿는다. 하지만 우리의 믿음과 신뢰는 달라야 한다. 성경은 반복적으로 재물에 관하여 불확실하고 불안정한 방법에 지나지 않는다고 설명하고 있다.

6장17절下: ... 정함이 없는(불확실하고 불안정한)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며)

6장18절: (하나님께서 주신 재물로 우상숭배하거나, 그것을 의지하거나, 그것을 신뢰하지 말고 그 재물로)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전도, 선교, 구제를)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제 19절에서 바울은 앞의 17-18절 교훈의 궁극적 유익을 밝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서 분명한 보상이 있을 것임을 밝힌다.

6장19절: 이것이(17-18절의 교훈을 따르는 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확실하고 안정된) 좋은 터를 쌓아 ★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6:20-21, 끝맺는 말 : 마지막 당부와 축도

6장20절: 20. 디모데야 망령되고 헛된 말과 거짓된 지식의(다른 교훈의) 반론을 피함으로 네게 부탁한 것을 지키라(사수하라)

→ 20절을 예전 개역한글성경으로 다시 보자.

(담전 6:20, 개역한글) 디모데야 네게 부탁한 것(본서 전체에 기록된 권면들과 진리)을 지키고(지키라) 거짓되이 일컫는 지식의 망령되고 허한 말(다른 교훈)과 변론을 피하라(다른 교훈을 따르는 사람들과 논쟁을 피하라)

바울이 디모데에게 부탁한 것이 무엇인가? 본서에 기록된 권면들과 진리이다. 디모데야! 네게 부탁한 진리를 사수하라! 그리고 거짓되이 일컫는 지식의 망령되고 허한 말, 다른 교훈과 변론을 피하라! 다른 교훈을 따르는 사람들과 쓸데없는(의미없는)논쟁을 피하라.

6장21절: 이것을(다른 교훈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어 믿음에서 벗어났느니라 은혜가 너희와(에베소교회와) 함께 있을지어다

→ 여기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단자들과의 헛된 논쟁을 주의하며, 디모데 너에게 부탁한 진리를 사수하라! 는 당부를 함으로써 서신을 마무리 하고 있다.

다시 오실 그리스도 예수님, 심판주 앞에서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서기를 소망한다면, 특별히 물욕에 대하여 경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에 따른 실천 : 디모데전서 6장

- 바울은 당시 악법인 노예제도 앞에서 그리스도인이 선으로(고차원적인 윤리로) 악을 이겨야 함을 교훈한다. 그리스도인이 악으로 악을 이기려 한다면 하나님의 이름에 욕이 돌아가게 된다.
- 바울은 다른 교훈을 가르치는 거짓 교사들의 특징에 대해 묘사하면서 특별히 그들의 물욕(物慾)과 종교 상업주의에 대해 지적한다.
- 바울은 디모데에게 거짓 교사들과는 달리 ‘물질에 대하여 만족하는 마음’을 가질 것을 권면하며,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충분하다’는 청빈(淸貧)한 태도를 가질 것을 권면한다.
- 돈을 사랑하는 자는 사탄의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된다.
-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뿌리다! 라는 시공을 초월하는 진리를 가슴에 새겨야 한다.
- 사람은 누구나 진리와 돈, 곧 하나님과 맘몬(Mammon)을 동시에 추구할 수 없다(마6:24, 눅 16:13).
- 하나님의 사람은 공의(의로움)와 경외심에서 비롯된 영적 성숙과 희생적인 사랑과 신실과 인내와 온유를 따라야 한다. 그리고 바른 믿음을 위해 싸우며 영원한 생명을 굳게 간직해야 한다.
- 바울은 하나님을 어떤 사람도 보지 못했고 또 볼 수 없는 분으로 소개한다.
- 불확실하고 불안정한 재물(돈, 부동산, 금은보석, 보험, 주식 등)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어야 한다.
- 하나님께서 주신 재물로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전도·선교구제)을 많이 하며 나누어 주기를 좋아해야 한다. 이는 확실하고 안정된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영생)’을 취하는 방법이다.
- 바울은 디모데에게 다른 교훈을 따르는 이단자들과 헛된 논쟁을 피하며, ‘디모데 네게 부탁한 진리를 사수하라!’ 고 당부함으로써 본서를 마무리한다.
- 심판주로 재림하실 그리스도 예수님 앞에서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서기를 소망한다면, 특별히 물욕에 대하여 경계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